

식약처, 추석명절 성수식품 일제 점검 실시

- 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조리·판매업체 등 약 5,860여 곳 선제적 점검
- 국내 유통식품(약 1,480건) 및 통관단계 수입식품(33품목) 검사 강화
- ‘면역력 증진’, ‘장 건강’, ‘혈행건강’ 등 온라인 부당광고 집중 모니터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9월 8일부터 1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석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에 선물·제수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떡, 한과, 만두, 청주, 축산물(포장육 등),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총 5,86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위생점검과 함께 선물·제수용 식품에 대한 유통단계(국내 유통)와 통관단계(수입식품) 검사도 강화한다.

유통단계에는 떡·한과·전통주·고사리·참돔·포장육·액란·건강기능식품 등 1,483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통관단계에는 수입되는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들기름 등)·어육살 등 가공식품(15품목) ▲목이버섯·도라지·돼지고기·명태·새우 등 농·축·수산물(12품목) ▲단일·복합 영양소제품·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6품목)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실시한다.

* 납, 카드뮴,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벤조피렌, 이산화황, 보존료, 기능성분 함량 등

아울러, 명절 전에는 선물용 식품 등의 온라인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거짓·과장·소비자 기만 광고 등이며, 특히 ‘면역력 증진’, ‘장 건강’, ‘혈행 건강’ 등의 표현으로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은 신속히 회수·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올해 설 명절에 실시한 합동점검 결과 총 7,717곳 중 115곳(1.5%)을 적발*했으며, 온라인 게시물 부당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결과 320건 중 45건(14.1%)을 적발**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요청 등 조치한 바 있다.

* (식품분야) 건강진단 미실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축산물분야) 건강진단 미실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22건),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표방(16건) 등

한편 식약처는 올해 다이소, 편의점 등의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현장점검(부당한 광고 위반 여부 포함)과 수거·검사도 실시한다.

* ('25년 7월 기준) 다이소 1,234곳, 편의점(GS25, CU, 이마트24, 세븐일레븐) 11,256곳

또한 업계(다이소 본사,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위생적인 제품 보관·진열, 소비기한 준수 등 자발적인 위생안전 관리를 당부하는 한편 각 점포 매대에 소비자가 제품 정보와 섭취시 주의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비치할 것을 요청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담당 부서 <총괄>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	책임자	과 장	박동희 (043-719-2051)
		담당자	사무관	이상모 (043-719-2081)
<온라인 부당광고 모니터링>	사이버조사팀	책임자	과 장	박영민 (043-719-1901)
		담당자	사무관	주민석 (043-719-1910)
<수입식품 통관 단계 안전관리>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	책임자	과 장	손영욱 (043-719-2201)
		담당자	사무관	유행일 (043-719-2210)
<수입식품 유통 단계 안전관리>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	책임자	과 장	조성훈 (043-719-6251)
		담당자	사무관	김윤정 (043-719-6257)
<축산물 안전관리>	식품소비안전국 축산물안전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성일 (043-719-3240)
		담당자	사무관	설찬구 (043-719-3253)
<농·수산물 안전관리>	식품소비안전국 농수산물안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윤채 (043-719-3203)
		담당자	사무관	유범열 (043-719-3224)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식품소비안전국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임창근 (043-719-2451)
		담당자	사무관	김양수 (043-719-2456)

